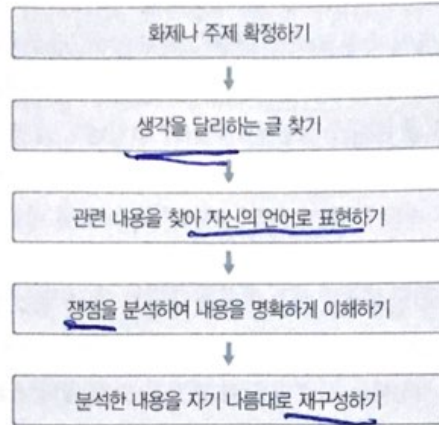


인간·자연·사회에 대해
풍는 현실적이며 이념적
인 의식의 재 형태를 의
미한다.

3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



#대조

대조: 차이,
비교
관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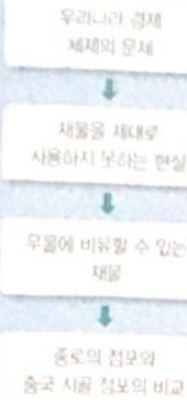
◆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는 고정적이고 확정된 과정은 아니고 화제나 주제, 혹은 독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4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유의할 점

-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하기: 화제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한다.
- (2) 비교할 만한 글 찾기: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글들을 도서 목록, 전문가의 조언,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하여 찾는다.
- (3)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기: 분야나 관점에 따라 글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다.
- (4) 자신이 찾는 해결 방법으로 재구성하기: 서로 다른 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자신이 찾는 해결 방법으로 재구성한다.
- (5)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글쓴이의 생각을 폄하해서는 안 되고 열린 마음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 (6) 자신의 주체성 확립: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내용 연구



여외 풀이

- 물산(物産)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
- 공장(工廠) 수공업에 종사하던 장인.

구절 풀이

- 지금 우리나라는 ~ 물산이 없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많이 늘었으며, 각 지방마다 여러 물품들이 생산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나라 안에 ~ 나라로 흘러간다. 여러 재물이 유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 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 둔 채 재물을 강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수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를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 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한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 탓에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는 자기에 물건의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럴겠는가?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 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진다.

재물을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 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비단을 짜는 기술이 파멸해졌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과 도공, 품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 네거리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리가 채 안 된다.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 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에 걸쳐 있었다.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변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우리나라 전체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물자가 유통되는나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문제

㉡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

㉢ 우물에 비유할 수 있는 재물

㉣ 종로의 점포와 중국 시골 점포의 차이

01

9449-0007

윗글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사농공상 사이에 양~~X~~화가 심해져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 ② 우리 상황을 김소하다고 치부하여 기술을 숭상하지 않아 상업이 황폐화되었다. 0
- ③ 중국의 화려한 문물을 보고 사치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0
- ④ 생산되는 물품들을 바탕으로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0
- ⑤ 나라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건들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9

02

9449-0008

윗글의 입장에서 <보기>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 보기 ■

◀ 나의 할아버지가 성천 부사로 있을 때 그 도의 감사는 학사 김응조였다. 그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낸 것이 지금까지 상자 속에 간수되어 있었는데, 주척으로 재면 세로는 아홉 치, 가로는 한 자 두 치에 지나지 않으며 종이 또한 품질이 얇고 나쁘다. 평안도는 서쪽이 부유한 지방이었고 감사란 존귀한 벼슬인데도 재정을 이처럼 아꼈으니, 그 무렵 풍속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수령들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종이 품질이 가장 나쁘다는 것도 크기나 두께가 이와 비교하면 갑절도 더 되니 종이값만 따져도 옛날에 비하면 일고여덟 배가 넘는 셈이다. 또 상관에게 보내는 편지 종이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쓰게 되니 값을 따져도 몇 갑절이 될 것이다. 나는 <중국> 사람이 쓴 편지 종이도 보았으나 이렇게 좋고 큰 것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대개 종이란 것은 사대부가 몸소 만드는 것이 아니니 만들자면 그 재정이 반드시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데, 위에서 쓰기만 하는 자는 이를 걱정하지 않으니, 백성을 못살게 한다는 것은 이 종이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

- ① 각자 나라의 사정이 있으므로 중국과 종이 사용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②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좋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사치이다. X
- ③ 좋은 종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검소함이라 할 수 없다. X
- ✓ ④ 좋은 종이 사용을 장려하지 않으면 관련 기술이 쇠퇴할 수 있으므로 비난만 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 ⑤ 좋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검소함을 추구하는 우리 풍속에 맞지 않는다.

03

9449-0009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 보기 ■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밤·감·매며, 식료·꿀·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 박지원, 「허생전」 중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은 물자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해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할 수 있었다.